

출판세계는 끊임없는 지적·인적 피드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출판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무장해 책과 출판을 통한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출판시장에 이제 막 뛰어들어든 새내기 출판인들의 출사표를 통해 우리 출판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편집자 주>

새내기 출판인들의 출사표

아카이브북스

출판경험 전무...단돈 2,000만 원으로 '저질러 놓고 보자'

평범한 연구자서 출판 비즈니스맨 변신,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등 문제작 출간

'남과 다른 아젠다 생산이 출판의 사명', 굳게 믿어



책이 출간되면 배낭에 책을 담아 각종 언론사와 잡지사, 출판사로 향한다. 출판인 선배들을 만날 땐 꾸지람 들을 준비를 단단히 한다. 그 시간이 싫기보단 귀하고 소중한 거 느껴지는 요즘이다. 아카이브북스의 허재우(38) 대표는 “무모하게 시작한 일”이지만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0월, 출판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허 대표는 사업, 직장 경험이 전무한 평범한 연구자였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강의와 연구를 하던 그가 출판업에 뛰어든겠다고 하자 지인들은 “온실 속 화초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출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소자본 2,0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으니 빚만 잔뜩 지고 포기할 것이란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접을 꿈은 아니었어요. 2004년 1월에 한겨레문화센터의 강좌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여름에 바로 책을 제작했습니다.”

사진 분야에선 10년 넘는 경력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출판

은 경험도 지식도 부족했다. 그렇다 해서 출판사에 신입으로 입사하기에 30대 중반이란 나이는 너무 많았다. 어느 출판사에 보수 없이 들어가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제안도 해 봤지만 모두들 꺼렸다. 그러나 허 대표는 “출판 경험이 없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든 해보자’는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카이브북스는 사진과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체계화)를 중심축으로 기획 출판을 하고 있다. 주로 한국 근대사나 현대사에 관련된 사진들을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 사진을 통해 펼칠 수 있는 담론들을 생산해 냈다. 약 1년 남짓 출간된 책들은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이발소에 간다> <한국현대사진의 흐름> 등 다섯 권. 특히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사진을 통해 조선의 기생들이 어떻게 왜곡돼 논의되었는가를 연구한 것으로 사진과 근대사가 만난 문체적 담론을 생산한 최초의 시도였다.

“엄밀히 말하면 저 혼자 하는 1인 출판이지만 2,3명의 사진 기획위원들의 기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집 스텝진도 갖추어서 사진 전문출판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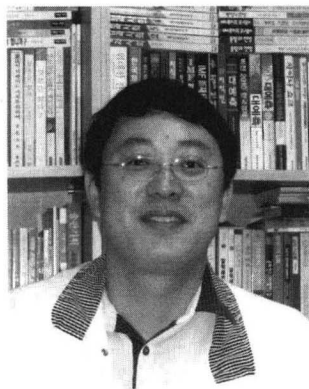
허 대표는 “창업 초기이니만큼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기 위해 우선 사진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향후 콘텐츠의 폭을 조금씩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렌드만 좇다간 가랑이만 찢어지고 만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남과 다른 ‘아젠다’를 생산하는 게 출판인의 사명임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취재 김청연 기자

부산 문화 알리미, 지방출판의 벽 허물고 싶다

'오래 묵어 가장 높이 나는 때, 산지니처럼 날아오를 터...'

지방 · 서울 오가며 고군분투, 첫 책 《영화처럼 재미있는 부산》



부산에 위치한 산지니 출판사의 강수걸(40) 대표는 소위 말하는 '출판통'은 아니다. 출판 사문을 열기 전까진 창원의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약 10여 년 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출판계에 몸을 담게 된 이유는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무턱대고 개

업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다. 출판 시스템과 업계 생리를 알기 위해 매주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출판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산지니란 이름으로 출판등록을 하고 첫 책 《영화처럼 재미있는 부산》을 내놓았다. 두 권 모두 부산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둔 콘텐츠면서 국내 필자의 저작이었다.

"제본소에서 첫 책을 받아봤을 때가 제일 기뻐고 마음이 뿌듯했지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판, 대형서점이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 계약 한 건이라도 하려면 서울로 가야 했죠. 열악한 제작·유통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시스템은 나중 문제였다. 시스템은 차치하고라도 지방 출판사에 대한 편견을 떨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실감했던 순간이 많았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쇄대행업체 혹은 자비 출판이란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한 일본출판사에선 서울출판사와 어떻게 다른가를 집요하게 캐물으며 결국 계약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이런 일로 좌절하기보다 활발한 출판활동을 통해 지역간 단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새삼 의욕을 내비쳤다.

"첫 책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풍경을 따라가면서 영화처럼 재미있게 부산을 소개한 책이고, 이번에 나온 책 《반송 사람들》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책들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잘 아는 곳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지요. 앞으로도 부산 혹은 부산 사람들에 대한 출판물을 꾸준히 낼 계획입니다."

현재 산지니의 식구는 강 대표를 포함해 4명. 기획편집, 디자인, 관리, 영업에 각 한 명씩 담당자가 있는 1인 1포지션 시스템이다. 강 대표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손으로 직접 책을 만드는 일이 무척 행복하다며 이

름처럼 생명력 있는 출판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산지니'란 산 속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어 가장 높이 날고 오래 버티는 매를 의미한다.

취재 김청연 기자

하늘고래

영업인으로 잔뼈... '시행착오는 귀중한 경험의 씨앗'

《나의 아빠, 장 지오노》와 《할머니의 기억》 등 펴내

자신감 바탕, '2006년도 암, 돈, 수학, 노인 등 콘텐츠 책으로'

하늘고래 고순화(37) 대표는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판영업인 가운데 여성이 거의 없던 10여 년 전, 그는 문학동네 영업인으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그후 줄곧 문학동네에서 활동하며 영업인으로 잔뼈를 키워왔다. 물론 지금처럼 기획 마케팅이라는 표현조차 없던



시절이라 힘든 순간도 많았고, '이쯤에서 그만 접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평소 좋아했던 작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책을 알리는 일이 가져다 주는 보람을 쉽게 버릴 수 없었다. 결국엔 문학동네가 6개 자회사를 꾸렸을 때, 해나무라는 출판사의 대표직까지 맡게 되면서 출판을 친직으로 여기게 되었다.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1년간 공백기를 가졌죠. 쉬는 1년 동안 혼자 독립적으로 원하는 책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출판사 문을 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 대표 역시 시련이 없을 리 없지만, 그는 긍정적이었다. "그간 웃을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밝게 웃는 모습은 그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되다시피 했다. 출판등록증을 받은 날도 그랬고, 첫 책 표지가 인쇄기를 빠져나오는 순간도 그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책을 알아줄 때,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은 기자가 정성껏 서평을 써주었을 때 만큼 기분 좋은 때도 없었다.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책으로 함께 호흡한 독자들의 반응을 느꼈을 때 출판을 선택한 보람을 느꼈다.

고 대표를 가슴 벅차게 해준 책들은 《나의 아빠, 장 지오노》와 《할머니의 기억》. 모두 '가족'이란 테마로 묶이는 따뜻한 콘텐츠들이다. 고 대표는 "사실 어떤 분야의 책을 내겠다는 대답을 하기가 가장 어렵다"며 "우선 나 스스로 시선을 먼저 두게 되는 주제들을 책으로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물론 주제는 각기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삶에 윤희유 역할을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다. 혹자는 방향성이 불명확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창업 초기이니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는 데 겁을 내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만큼 하늘고래의 2006년도 한 해는 암, 돈, 뇌 집중력 훈련, 수학, 노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책으로 내놓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는 원년이 될 예정이다. 하늘고래는 고래가 역동적으로 바다 위를 치솟으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떠올린 이름. 고 대표는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귀한 경험의 씨앗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하늘고래 창사이래 처음 해 본 인터뷰”라며 웃어보이는 그는 “지금 이 순간 역시 출판사 창업 이래 가슴 설레인 순간 중 하나로 각별히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취재 김청연 기자

수류산방.중심

네 명의 각기 다른 전문 인력이 모였다!, 크리에이티브 존중하는 평등한 출판 시스템



수류산방.중심은 출판사치고 인적구성이 특이한 편이다. 2005년 초 출범 이래 분야는 제각각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크리에이터들(편집자, 디자이너, 사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 만든 출판사다. 심세중(33) 대표는 “자본금 없이 시작을 했다”며 “초기엔 교통비가 없어서 가정집을 개조한

사무실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네 사람은 안팎을 오가며 개인작업과 공동작업을 병행했다. 독특한 시스템의 이유를 묻자 심 대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존중이자 대기업식의 조직화에 저항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도모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평등’을 지향하는 전위적인 시스템이다.

“주 출간종목은 예술(건축, 사진, 패션 등을 포함)과 여행 그리고 환경책입니다. 편집과 사진, 디자인 역시 집필 작업 못잖게 고유하고 존중돼야 할 영역이라는 뜻으로 편집실명제를 하고 있고 편집과 디자인 각각에 카피라이트도 부여하고 있지요.”

심 대표는 콘텐츠 뿐 아니라 디자인, 제작방식 등 여러 면에서 책을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로 만드는 새로운 출판 작업에 의지를 드러냈다. 가령 예술서의 경우 서양에서 이름났다 하는 책들을 봇물처럼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지만 자사만큼은 서툴더라도 자생적 시도, 주체적인 고민이 담긴 책들을 출간할 생각이다. 지

금까지 이런 뜻으로 만들었던 책은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비단길 보고서》《푸드스타일리스트 용齋의 트래블그라피》《알바이신의 고양이들》《20세기 건축의 모험》 등. 이 중 《20세기 건축의 모험》은 필자 그리고 출판사의 지명도가 전무한 상태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효자책이다.

“서점 직원 말씀이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의 책인데 독자들이 꾸준히 찾아서 치울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자들이 편집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주고 있고 이로써 그들과 소통하는 느낌을 받으니 즐거웠지요.”

엄밀히 말해 수류산방중심은 아직까지 형편이 녹록치가 않다. 애초 자본금 없이 시작했고 출간한 책들이 대개 장정이나 사진 등에서 돈이 많이 든 것들이기도 하다. 심 대표 개인적으로는 책들이 훨씬 가벼워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뜻을 담아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책도 구상중이다.

“향후 2년 동안은 책으로 나올 콘텐츠, 원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내는 게 관건이죠. 1월에는 삼성미술관 리움 건축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making museum》을 기대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 대표는 책을 안 읽던 사람도 솔깃하게 할 책, 책을 많이 읽던 이도 새롭다고 느낄 만한 책을 만들 각오다. 프로젝트 ‘어스 리딩earth reading’ (만든 책 가운데 더 널리,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구절들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쇼윈도나 벽에 써 붙이는 방식) 등 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그런 다짐을 실천키 위해서다. *******

취재 김청연 기자